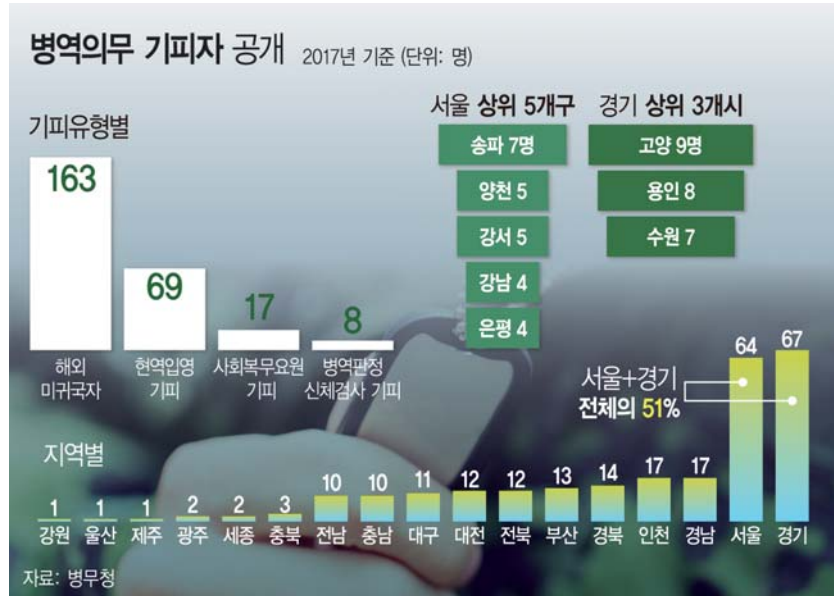


병역기피자 강남3구·일산·분당 편중

경기·서울지역 전체 51%...경기 고양·용인·수원·서울 송파順

병무청, 대상자 257명 신상 홈페이지 공개...국의 불법체류자 163명



소위 '부자 동네'로 불리는 강남 3구와 일산 분당 등 수도권 대도시에 주소지를 둔 병역기피자 상당수가 해외 미귀국을 사유로 병역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병무청이 공개한 2017년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이번 공개대상자 257명 중 절반 이상이 국외 불법체류자로 나타났다.

공개대상자 명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피유형별로는 국외 불법체류자가 163명(63%)으로 가장 많았고, 현역입영 기피자 69명(27%), 사회복무요원소집 기피자

17명(7%),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8명(3%)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21~24세가 29명(11%), 18~20세가 30세 이상은 44명(28%)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64명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경기 지역 병역기피자는 전체 5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인천(17명), 경남(17명), 경북(14명), 부산(13명), 대전·전북(12명), 대구(11명), 전남·충남(10명), 충북(3명), 광주·세종(2명), 강원·울산·제주(1명) 순으로 집계됐다.

병역기피자가 가장 많았던 경기 지역은 고양(9명)과 용인(8명), 수원(7명) 3개 도시가 지역 병역기피자 전체의 36.8%를 차지했다.

특히 고양의 경우 9명 전원이 국외 불법체류자였다. 용인은 현역입영기피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이 국외 불법체류자로 드러났다. 수원의 경우 국외 불법체류자·현역입영 기피자·사회복무요원소집 기

피자 등 다양했다.

서울 지역은 송파구(7명), 양천구(5명), 강서구(5명), 강남구(4명), 은평구(4명)가 상위 5위를 차지했다. 병역의무 기피자 중 이른바 '강남3구' 지역 출신은 14명(서울 전체의 21.9%)으로 송파구(7명), 강남구(4명), 서초구(3명)순으로 나타났다.

서초구는 지난해 강남3구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했지만 올해는 가장 적었다.

송파구의 경우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1명을 제외한 6명이 국외 불법체류자, 양천구의 경우 현역입영 기피자 1명을 제외한 4명이 국외 불법체류자, 강남구의 경우 4명 전원이 국외 불법체류자였다. 은평구는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1명을 제외한 4명이 국외 불법체류자로 나타났다. 서초구는 사회복무요원소집 기피자 1명을 제외한 2명이 국외 불법체류자였다.

매년 관심을 받는 장차관급 자녀와 연예인, 체육선수 등 병역기피자 명단은 이날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다.

병무청은 이날 오전 11시 병역의무 기피자 257명의 인적사항 등을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공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2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로페이 이용확산 결의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로페이 써 본 박원순 "새로운 결제시대 왔다"

소상공인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부담 0%로 낮춰 부담 ↓

소상공인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부담을 0%로 낮추는 '제로페이' 시범사업이 20일 시작된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 20일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로페이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확산 결의대회에 참석해 편리성 등을 강조하면서 성공적인 시장 정착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제로페이 사업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이 공약으로 내건 정책이다.

박 시장은 "오늘부터 정식으로 영업에 들어간다. 제로페이 서비스가 오히려 신용카드를 갖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편리하다"며 "(제로페이 앱) 다운만 받아 손 동작을 몇 번만 하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로페이'는 결제 카운터에 비치된 제로페이 QR코드(전자직인)를 스마트폰 앱으로 인식해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내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카드 수수료를 0%로 낮춰 소상공인·지역업체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8억원 이하 소상공인 제로페이 가맹점은 수수료율 0%, 8억~12억은 0.3%, 12억 초과는 0.5%다.

박 시장은 "제로페이"를 통해 500만명에 이르는 전국의 자영업자들 영업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제로페이를 이용해 서울시의 다양한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인제도와 인센

티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세종문화회관 입장료, 서울시립교향악단 공연티켓, 서울대공원 입장료, 공공주차장 할인 등 공공시설 할인혜택을 계획 중이다.

박 시장은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며 "이제야 진정한 경쟁력이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결의대회가 끝난 뒤 직접 제로페이 앱을 실행한 후 카메라를 통해 계산대 앞에 있는 QR코드를 찍었다. 그러자 어플에서 박 시장의 은행 계좌번호가 나오면서 상품 금액을 입력할 수 있었다.

박 시장이 따뜻한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하고 직접 5600원을 입력했다. 이후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바로 상점 주인의 스마트폰에 돈이 입금됐다는 알림이 떴다. 박 시장은 전 과정을 직접 시연하면서 계속 "정말 쉽다" "이게 다 인가요?"를 반복적으로 말하며 "이렇게 간편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대성고 유기족의 절규 "아이들 잘못되는 현실 황망"

강릉 펜션 사고 참사 유기족들이 "황망한 결과가 나왔다"며 한탄한 심경을 전했다.

1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유기족들의 심경과 입장을 전달했다.

유기족들은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착하게 생활했다"며 "이번 체험 활동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했다. 심지어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라고 해서 숙소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무리 생각해보도 우리 아이들은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러나 이렇게 황망한 결과가 나왔다"며 "아무 잘못도 없는 우리 아이들이 잘못되는 현실에 대해 우리 어른들과 우리 사회가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지만 우리는 조용히 가족장을 치루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애들을 보내고 싶다"며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거나 실명을 거론하거나 아이들 사진을 올리는 과도한 관심을 갖는 것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북부 '택시 파업'에도 출근길 큰 불편 없었다

카카오 카풀에 반발한 택시업계의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은 큰 불편 없이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다.

20일 경기도와 일산 지자체 따르면 경기도는 이날 오전 4시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 24시간 동안 진행되는 택시 총파업에 경기지역 택시 운전사 1만7844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경기지역 택시 등록대수는 3만7318대, 택시 운전사는 4만2000여 명으로, 파업 참여자는 전체의 42% 수준이다.

이번 총파업으로 경기지역에서도 출근길 대란이 예상됐으나, 우려와 달리 경기북부지역은 오히려 한산한 교통량 덕분에 자가용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출근 소요시간이 평소보다 줄었다는 소리까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 역시 파업 대책으로 줄어든 버스 배차간격 덕분에 평소보다 여유롭게 버스를 이용하는 모습이었다.

김선규(22·대학생)씨는 "아침에 서울에서 파주까지 버스를 타고 왔



카카오 카풀에 반대하는 택시업계가 파업한 20일 오전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택시정류장에 택시가 텅 비어 있다.

는데 오히려 평소보다 빨리 도착했다"며 "출퇴근길 택시 이용객이 대부분 급한 용무가 있는 사람들이라 보니 오히려 화생이나 직장인에게 는 영향이 적은 것 같다"고 말했다.

고양시에 사는 이진선(34)씨도 "평소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 편도 아니지만 오히려 도로를 막고 있는 택시의 불법주차가 눈에 띄게 줄어 소통이 잘됐던 것 같다"며 "공감 대도 형성하지 못한 이번 택시 파업

은 국민들의 반감만 더 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전했다.

파주에서 택시업에 종사하는 김성태(56)씨는 "택시를 운전하지만 간혹 가까운 거리를 가지 않으려는 다른 기사들을 보면 파업에 공감하지 않는 국민들이 이해가 된다"며 "차라리 사납금을 낮추기 위한 투쟁을 했다면 택시기사나 국민들이 조금 더 지지해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털어놨다.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